

신 앙

차 례

1. 공인종교
2. 무속신앙
3. 마을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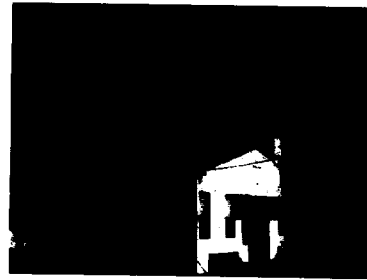
신평리의 종교는 다양한 편이 아니었다. 유교적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어 신평리 안에 있는 교회나 절의 신도들은 마을사람 외에 외부인이 대다수였다. 자성원 외에 절터에 관하여서는 대중적인 절이 아닌 씨족 사람들만 다니는 절이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마을의 심방인 이기심 씨가 현재는 거주지를 옮겨서 이와 관련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유교적 제에 대해서는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1. 공인 종교

1) 교회

1951년 5월 6일 1·4 후퇴시 제주도에 피난 온 성결교회 성도들이 오태상 목사와 함께 건입동 노동의원 자리에 천막을 치고 예배드리기 시작

한 것이 제주지역 성결교회의 시초이다. 이미 장로교에서 파송한 이기풍 목사가 1908년 복음의 씨앗을 뿌려 그 영향으로 장로교의 영향이 강한 제주에서 44년 후 성결교회가 사중복음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것이다.



6.25전쟁의 와중인 1959년 8월 탄생한 제주제일교회는 1962년 8월 지교회로 서귀포 서귀1리에 두 번째 성결교회인 서귀포교회를 개척했다. 이후 신흥교회, 에덴교회 등 성결교회들이 차례로 세워지게되었다.

해방 전에도 교회가 생겼었다. 위치는 지금의 슈퍼마켓이 있는 곳 앞 창고로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생겼다. 그리고 그 후에 당시 침례교회의 장로님이 표선으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그 이름이 '표선침례교회'였다. 현재의 위치에는 1986년도에 들어서 자리 잡게 된 곳이다. 이 교회의 교인 수는 약 10명(성인) 정도로 대부분이 외지 사람이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교인 중에 마을 사람들은 주류계층에 속하지 못한 주변인에 머무르는 분들이라고 한다. 즉 그 분들은 신병이나 알코올중독을 앓고 계신데 그 곳 교회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공부방을 운영하여 약 29명 정도의 마을 아이들의 교육도 책임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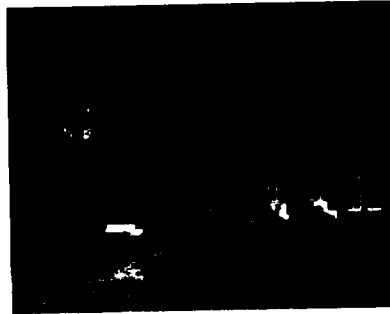
<제보자: 소영성(목사, 52세·남),
박하영(목사 배우자, 44세·여)>

2) 절

자성원은 1980년도에 선서화로 유명한 일장스님에 의해 창건됐다. 암자 이름을 목부원(牧夫苑)이라 하고, 도내 많은 불자들에게 기도도량으로 또는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했던 곳인데, 2001년 5월에 청화 큰스님이 인수하면서 자성으로 사명(寺名)을 다시 내걸었다.

자성이란 우리 인간성의 본래 면목, 자성청정심, 인간성의 순수한 자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원적인 생명이라고 큰스님은 설하셨다고 한다. 그

러므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되찾고 깨달아야 할 것이 불성인 동시에 자성임으로 이 자성이 바로 불성이고 범성이며 그 자리는 바로 생명자체라 할 것이다. 때문에 자성은 내 생명인 동시에 우주생명이다. 이러한 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도량으로 자성원이 거듭나기를 바라는 큰 스님의 원력인 것이다.



법당 안은 그리 넓지 않고 모신 불상도 비록 크지 않지만 그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편안하다. 앞마당에는 6미터 높이의 아미타불상이 김영희 보살의 시주로 봉안하여 모셔져 있고, 3000여 평이 넘는 텃밭에는 차나무가 가득 심어져 있다.

자성원의 시작은 1985년 일장스님으로부터이다. 일장스님이 조그마한 밭에 초가삼간을 짓고 살다가 조금씩 신도가 늘어나자 확장을 거듭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지금 자성원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일장스님은 그림솜씨가 빼어나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그림을 그려 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2000년 말까지는 이 곳 자성원의 주지 스님으로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지방으로 옮김에 따라 성년불교문화재단의 청화스님으로 주지스님이 바뀌게 되었다. 이후 본연스님을 거쳐 현재는 범현스님이 주지스님으로 있다. 그런데 신평리는 유교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자성원의 신도수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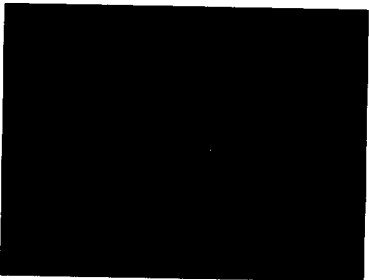
<제보자: 범현 스님(57세·남)>

2. 무속 신앙

1) 신평본향당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평리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당이다. 마을의 동쪽, 속칭 던데못이라는 곳 솔밭 속에 있다. 당은 10평 정도의 초가집으

로 되어 있는데, 집안 안쪽에 '본향지신 위(本郷之神位)'라는 비석을 세워 위패로 삼고 있다. 본향신의 이름은 '개로육서또'이다.



<본풀이>

웃손당 금백주 말젓아들이 산설물설

(山血水血) 밝아서 신평리 곱지동산에 오라 체암(처음) 우양적선(為)을 강침이광 오침이서 하고 좌정한 한집(神). 한집이 금이(神의) 옥통저를 가져 일사홀너닷새를 부는디, 하룻날은 이 마을 강동지 강침이 메누리가 물레레(물가로) 가단 보난 어떤 점잖은 어른이 앉아서(앉아서) 존 소리로 금이 옥통저를 불염선, 담공기(담공기=담구멍)로 눈을 소완(쏘아) 살피가니 그 어른이 보완 "네가 어떻게 인간이야?" 하니 "이 마을 강침이 메누리우다." 하니 "내가 인간일(인간 세상에) 내리고 보기는 너가 체암 들려시니 (만났으니) 네가 때식(식사꺼리)을 해여 들이라." 하여서 때식을 하여 들이는디, 뒷날은 또 오침잇 메누리가 그 모양으로 사름을 살피니 그 점잖은 어른이 말을 하되 "너가 어디 인간이나?" 하니 "오동짓 메누리우다." 하니 "내가 인간이 내리고 사름을 보기는 어젯날 보고 또 오늘 보암시니 내게 때식을 해여 들이라." 하니 "때식은 어떻게 해여 드립네까?" 하니 "하루 삼시씩을 해여 들이라." 하여 그렇게 여러 날을 정성을 들이는 게 불리하여가는 점이 이서지니 이젠 점잖은 어른이 강침 오침 양침에게 "그리 하거든 너네도 심난하고 너네들 해인 때도 내게 맞지 못하고 하니, 날쟁일을 하여(날을 정하여) 주건 정성을 들이라." 하여 "계난 때식 할 때에 음식을 어떻게 드립네까?" 하니 "계알안주에 자소주에 닭 두 점, 노기 당산메, 더운 메, 단 메, 맑은 제물 백돌래에 먹나." 하고 날쟁일을 해여 주는디 "선달 열나홀날 한집이 난 날이니 내게 정성을 들이라. 정월 초이틀날이랑그네 과세를 들이라. 이월랑 나건 요왕에 땡기는 잠수들랑그네 열사홀로 날쟁일을 험시니 너네들 그영 알라." 경허난 옛날은 두 집이서 한집을 상단골로 무어 차차 살아가니 산도 차지 물도 차지 전마을을 전부

차지하여 당집을 짓어서 자손들은 한집에 과세도 드리고 합네다.

제일(祭日) : 12월 14일 생일제(生日祭), 1월 2일 과세제(過歲祭), 2월 13일 용왕제(龍王祭) (성산면 신평리 여무 61세 홍매화)⁴⁾

신평리의 당의 종류는 과거 대략 어림잡아 여섯 군데 정도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소실되었다. 얼마 전에도 하천정비로 인해 하나의 당이 소실되었다.

<제보자: 오문복(72세·남)>

3. 마을 신앙

1) 포제

포제란 포신에게 1년 동안 평안히 지냈음에 보답하고 아울러 새해에도 음덕을 내려 평안하게 하여 주기를 기원하는 마을제사이다. 포신이란 명황(螟蝗: 곡식을 해치는 벌레)을 막아주는 신이다. 마을에는 명황이 없어야만 풍년을 바랄 수 있으므로 이 신에 제사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제도에 하늘에는 왕이 제사하고 지신(地神)과 곡신(穀神) 즉 사직(社稷)에는 지방관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같은 신에 제사를 여러 번 드리는 것은 귀신에 대한 아첨이라 여겨 마을에서는 포신에 제사하는 것이다. 포(醕)자에는 ‘모여 마신다(會飲)’는 뜻이 있는데 결국 포제는 신에 제사를 드리고 온 마을 사람이 제사에 쓰였던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먹으며 화합을 다지는 제사이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제관은 각 문증을 안배해서 뽑는다. 포제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4)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pp. 449~450.

가) 포제준비

포제는 매년 정월이면 부락민의 정성을 모아 1년 동안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유교식 제사이다. 예전에는 모든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조급 퇴색되기는 하였으나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장(里長)은 입춘 백일 전에 향회(里民總會)를 열어 제관 13인을 선출한다. 선출된 제관의 성명을 정중히 기록하여 유사(下人)를 시켜 부락 어른들에게 회람시킨다. 제관의 명단을 '천기(薦記)'라 하고 어른들에게 회람시키는 일을 '천기 돌린다'고 한다. 선정된 제관들은 제사일 15일 전부터 근신하여 조문과 문병을 아니 한다. 그동안 전사관은 집례·초헌관과의 논하여 제관들의 제청을 정하고 제물을 구입하여 정성스레 봉하여 둔다.

초헌관은 가급적 이장과 다른 성씨에서 뽑는다. 제관은 초헌관과 집례·대축에 뽑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상주 및 대공복인(大功服人)·죄에서 풀려나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관이 될 수 없다.

나) 입제(入齋)

입제란 재계(齋戒)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전사관은 초헌관·집례와 상의하여 제관들이 입제할 집을 미리 정하여 제관들에게 알린다. 입제하는 집을 재청(齋厅)이라 한다. 요즘은 마을회관을 재청으로 정한다.

제사일 3일 전에 모든 제관은 재청으로 입제하여 합숙하면서 몸을 깨끗이 한다. 삼헌관과 제집사(諸執事)가 방을 따로 하여 사용하고 알자가 헌관의 비서 역할을 한다.

부녀자는 제철에는 출입하지 아니 한다. 비록 위로하는 물품(떡·술·담배 등)을 가지고 가더라도 바깥채에서 전사관에게 전하고 제관이 머문 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남자들은 몸이 부정하지 않으면 재청에 출입할 수 있다. 재청에 출입할 때는 제관이 손아래사람이라도 큰절로 인사를 나눈다.

제관들은 언제나 예복을 갖추어 입고 언행을 삼간다. 선비수업을 하는

셈이다. 집례(執禮)는 홀기를 쓰고 대축은 축문을 지어 모든 이에게 회람시켜 고평(考評)을 받는다.

다) 소단(掃壇)

제사 전날에는 한 사람씩 동원되어 제단을 청소한다. 이를 소단이라 한다. 제사에 필요한 그릇 및 가구들을 만든다. 유사는 한 집에 쌀 한되씩을 받아온다. 각 가정에서는 가을이 되면 '포제쌀'이라 하며 미리 쌀 한 되를 정성껏 보관하였다가 내놓는다. 불평하거나 내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전사관은 받아들인 쌀이 많고 적음을 헤아려 제관들이 식사 및 비용을 지출한다. 입재기간 동안에는 집례의 지휘 아래 제례를 연습한다. 제사 전일에는 제물을 장만하여 봉한 다음 행제연습을 한다. 이를 습의라 한다. 이때에 부락 유지들은 혹시 실례가 되지 않을까 하여 가보기도 한다.

제사 전일 술시(戌時)가 되면 제관이 제단으로 나아가 자시(子時)가 되면 홀기(笏記)에 적힌 대로 제사를 받든다.

라) 헌관망(獻官望)과 집사방(執事榜)

입재하면 제관의 직분과 이름을 격식에 맞게 써서 벽에 붙인다. 이를 집사방이라 한다. 제관에 뽑혔는데 일신상 사고가 생겨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글로 사유를 써서 올린다. 이를 단자(單子)라 한다. 몸소 재청에 가서 문 밖에 꿇어앉아 사유를 아뢰기도 한다.

집사방을 쓰는 격식은 다음과 같다.

모년신풍리포제헌관명금제집사방

초헌관(初獻官) 1인	집례(執禮) 1인
아헌관(亞獻官) 1인	찬자(贊者) 1인
종헌관(終獻官) 1인	알자(謁者) 1인
도예차(都預差) 1인	봉향(奉香) 1인

봉 로(奉 庖) 1인 전 작(奠 爵) 1인
봉 작(奉 爵) 1인 사 준(司 樽) 1인

※ 예전에는 장생염(掌牲鹽), 반감(飯監)이 한 사람씩 더 있었다.

마) 제물의 종류

제관이 선정되면 천기(薦記)와 제물기(祭物記)를 전사관에게 준다. 전사관은 미리 준비하여야 할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의 종류는 다음 예시한 제물기와 같다.

제물기(祭物記)

- 도미 1승(稻米 一升): 쌀 한 되
- 양미 1승(梁米 一升): 서속쌀 한 되
- 서미 1승(黍米 一升): 기장쌀 한 되(찰서속으로 대응)
- 직미 1승(稷米 一升): 피쌀 한 되
- 주미 1두(酒米 一斗): 술 빗을 쌀 한 말
- 편미 1두(米 一斗): 떡 빗을 쌀 한 말
- 녹포 3정(鹿脯 三脰): 사슴고기 포 세 오리(쇠고기로 대응)
- 어소 3미(魚 三尾): 말린 바닷고기 세 마리
- 녹염 1승(鹿鹽 一升): 사슴고시 젓 한 되
- 형염 1승(荊鹽 一升): 소금 한 되
- 어염 1승(魚鹽 一升): 저린 바닷고기 한 되(보통 세 마리)
- 율황 1승(栗黃 一升): 밤 한 되
- 향 1승(香 一升): 향 한 되
- 축 1봉(燭 一封): 초 한 봉
- 폐백지 3장(幣帛紙 三張): 폐백지 세 장
- 토지 1권(土紙 一卷): 토지 한 권
- 희생 1두(犧牲 一頭): 희생으로 돼지 한 마리

바) 제물준비

전사관은 녹포(鹿脯)·어소(魚소)·붓·종이 등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은 미리 사다가 봉하여 두었다가 입재하면 재청으로 옮긴다. 청저(靑苴)·어해(魚醃) 등 당일 구하여야 할 것은 입재한 뒤 아랫집사를 시켜 사오게 한다. 모든 제물은 집사들이 제조하였다. 떡·술 등 부득이한 경우만 재청집 노부인이 도왔다.

- ① 반(飯): 밥이다. 쌀(稻)·기장(梁)·서속(粟)·피(稷) 네 가지 종류로 밥을 짓는다. 네 가지 쌀을 정결하게 씻어 물에 불려둔다. 제사 전날 해시(밤 9시~11시)가 되면 유사가 제단에 가서 미리 앉혀 둔 솥에 물을 적당히 붓고 물에 담근 쌀 네 종류를 그릇에 반씩 담아 그 그릇에 다시 적당히 물을 부어 솥 속에 넣어 불을 때어 밥을 짓는다. 이와 같이 솥 속에 그릇을 넣어 지은 밥을 '산매'라 하고 그 산매를 짓는 일을 '산매친다'고 한다.
- ② 병(餅:편으로 발음함): 정젓날 쌀을 물에 담갔다 건져내어 방아에서 찼는다. 부인이 찼지 않고 아랫집사들이 찼어서 체로 친다. 가루가 다 되면 시루에 담아 떡을 쪄낸다. 시루에 담기 전 가루에 물을 알맞게 섞어야 하는데 남자들이 경험이 없으므로 떡만은 재청 주인의 노부인이 한다. 만약 재청집에 노부인이 없을 경우에는 삼헌관 부인 중에서 미리 재계하여 담당한다.
- ③ 술: 술은 입재하는 날 술밥을 만들어 누룩과 섞어 빚는다. 이 역시 남자가 할 수 없으므로 떡과 같이 노부인이 한다.
- ④ 녹포·어소·울황·형염은 대로 만든 죽변(竹筵)에 담는다.
- ⑤ 녹포·어염·청조·근저는 나무로 만든 목두(木豆:나무쟁반 대응)에 담는다.
- ⑥ 폐백지는 길게 접어 대상자에 담는다.
- ⑦ 희생은 털을 뽑고 내장을 빼낸 다음 대그릇에 담는다(보통 돼지를 잡을 때는 털을 불에 태우는데(기시리는데) 희생돼지는 뜨거운 물을 찌그러 털을 뽑아낸다. 목 위의 털은 조금 뽑아 정결한 새로 묶고 염통의 피를 따로 접시에 둔다. 이를 모혈반(毛血盤)이라 한다).

사) 제기(祭器)

제기 뿐만 아니라 포제에 쓰는 모든 물품은 모두 새것만을 쓴다. 죽변·헌관의 홀(笏) 등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만들어 쓴다. 심지어 떡과 붓도 모두 새것으로 사다 쓴다. 만들 수 없는 제기는 제청주인이 입재 전에 깨끗이 씻어 밤에 이슬을 맞히고 낮에 햇볕을 쬐이기를 7일간 한다(자질구레한 모든 준비는 한 반에서 한 사람씩 차출되어 담당한다).

아) 제물을 봉함

제사 전날 모든 제물을 준비한 뒤 제관과 집사가 차례로 좌정(座定)하여 제물을 하나하나 그 양과 숫자를 확인하는 의식을 행한다. 이를 ‘제물 봉(封)한다’고 한다.

※ 제물 봉하는 의식

- ① 삼헌관(三獻官)이 북쪽에 남쪽을 향해 좌정한다(초헌관이 동쪽).
 - ② 알자는 종헌관 곁에 동쪽을 향하여 앉는다.
 - ③ 집례·동찬·봉향·봉작은 초헌관의 옆 한자리 밑에 서쪽을 향하여 일렬로 앉는다.
 - ④ 대축·서찬·봉로·전작은 종헌관 옆 한 자리 밑에 일렬로 동쪽을 향하여 앉는다.
 - ⑤ 집례는 일어서서 제물기를 들고 제물의 하나하나를 호명한다.
 - ⑥ 호명하는 대로 전사관은 호명하는 제물을 상에 받들어 삼헌관 앞에 놓는다.
 - ⑦ 삼헌관과 제집사가 살펴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결함이 없으면 초헌관은 충(充)이라고 충분함을 표시한다.
 - ⑧ 전사관은 그것을 제물고령에 담아 왼손(외우 꼬은 새끼줄)으로 묶고(봉(封)자 쓴 종이를 덮기도 한다)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 ⑨ 모든 제물을 이와 같이 봉하고 간략한 간식을 먹는다.
- ※ 간략한 간식은 초영례(初嘗禮)로 들어온 떡과 감주다. 요즘은 술로 바뀌었다.

자) 습의(習儀)

전날 오후에 여러 집사는 적당한 장소를 골라 집례의 지도 아래 제의를 연습한다. 예복을 갖추어 입고 집례의 창홀(唱笏)에 따라 진행한다. 삼헌관은 습의에 참가하지 않으므로 구경꾼을 삼헌관으로 대신 세워 행한다. 여러 번 실례(失禮)하면 벌주를 내기도 한다. 집례는 습의 전에 헌관에게 고하고 끝나면 무사히 끝났음을 고한다.

차) 행례(行禮)

술시(戌時)가 되면 제관과 집사가 제물을 앞세워 제단으로 향한다. 제관이 제단에 당도하면 먼저 가서 메를 짓던 반감(飯監)이 문외위(門外位)에 물을 뿌려 맞이한다.

모두 앉아서 시간을 기다려 자정(子正)이 되면 집례와 대축이 제물을 진설한다. 진설이 끝나면 초헌관에 고한다. 초헌관은 시간이 되었으면 행례를 명한다.

모두 예복을 갖추어 입으면 집례가 찬알(贊謫: 찬자와 알자를 부름)을 크게 외쳐 동찬·서찬·알자의 앞에 서서 제단 앞에 가서 네 번 절한다. 집례는 제자리에 서고 동찬과 서찬은 햇불을 들고 양쪽에 선다. 알자는 초헌관 앞에 잠깐 멈춰서서 읍한 뒤 중헌관 곁에 선다. 집례의 창홀(唱笏)에 맞추어 제사를 모신다.

카) 홀기(笏記)

알자는 헌관 이하 모든 제관을 인도하여 문밖으로 나아가 서시오.(謁者引獻官以下俱就門外位)

알자는 축관 및 제집사를 인도하여 단 남쪽으로 나가시오.(謁者引祝及諸執事俱就 南拜位)

알자는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유사들이 삼가 행사(行事)할 것을 청한다고 아뢰시오.(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俱請行事)

네 번 절하겠습니다. 헌관은 네 번 절하십시오.(四拜獻官皆四拜)

폐백을 올리는 예를 행하겠습니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손 씻는

자리로 나가시오.(行奠幣禮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서쪽으로 향하여 서서 홀을 가다듬고 손을 씻으시오.(西向立搯笏盥洗)

홀을 잡고 신위 앞에 나아가 북쪽으로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 세 번 향을 사르시오.(執笏引詣神位前北向跪搯笏三上香)

폐백을 드리시오.(獻幣)

홀을 잡고 굽어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편케 하여 서시오.(執笏俯伏興平身)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시오.(引降復位)

초헌례를 행합니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고 술을 따르시오.(行初獻禮謁者引初獻官詣奠所西向立酌酒)

다시 인도하여 신위전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꿇어앉고 홀을 가다듬어 술잔을 드리시오.(引詣神位前北向跪搯笏獻爵)

홀을 잡고 굽어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꿇어앉으시오.(執笏俯伏興少退跪)

축관은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고 축문을 읽으시오.(祝以進獻官之右東向跪誦祝)

홀을 잡고 굽어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내려가시오.(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

아헌례를 행하겠습니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손을 씻는 자리로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고 홀을 가다듬고 손을 씻으시오.(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西向立搯笏盥洗)

다시 술을 따르는 자리로 인도하여 홀을 잡고 서쪽을 향하여 서서 술잔을 따르시오.(執笏引詣尊所西向立酌酒)

신위전으로 인도하여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꿇어앉고 홀을 가다듬어 술잔을 드리시오.(引詣神位前北向跪搯笏獻爵)

홀을 잡고 굽어 엎드렸다 일어나 제자리로 내려가시오.(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

종헌례를 행하겠습니다.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손 씻는 자리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서서 홀을 가다듬고 손을 씻으시오.(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西向立搯笏手)

홀을 잡고 다시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서서 술을 따르고 다시 인도하여 신위전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꿇어앉고 홀을 가다듬어 술잔을 드리시오.(執笏引詣尊所西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執笏獻爵)

홀을 잡고 굽어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제자리로 내려가시오.(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

복주를 마시고 조육을 받습니다. 집사자는 준소로 나아가 잔에다 복주를 따르고 도마를 가지고 나아가 신위전의 조육을 덜어내고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로 오르시오.(飲福受胙執事者詣尊所以爵酌福酒持俎進減神位前胙肉謁者引初獻官升詣飲福位)

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홀을 가다듬고 집사자는 북쪽을 향하여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고, 헌관은 술잔을 받아 마시고, 술잔을 도로 집사자에게 주시오. 집사자는 빈 술잔을 받으시오. 집사자는 조육을 헌관에게 드리고 헌관은 조육을 받아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는 도마를 받아 내려가 동쪽 계단으로부터 문을 나가시오. 홀을 잡고 굽어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내려가시오.(西向跪搯笏執事者北向以爵授獻官獻官受爵飲卒爵以授執事者受虛爵執事者以胙授獻官獻官受胙以授執事者執事者受俎降自東階出門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

네 번 절합니다. 모두 네 번 절하시오.(四拜皆四拜)

변과 두를 거둡니다. 축관이 나가서 변과 두를 거두시오.(撤籩豆祝以進撤籩豆邊豆各一少移故處)

네 번 절합니다. 모두 네 번 절하시오.(四拜皆四拜)

망료(축문을 불사름)하겠습니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료위로 나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시오.(望燎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西向立)

축관은 들어가 축판과 폐백광주리를 갖고 동쪽 계단으로 내려가 감(坎구덩이)에 다 넣어 불사르시오.(祝以進取祝板及幣籠降自東階置於坎可燎)

알자는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행례가 끝났음을 아뢰시오.(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시오.(謁者引獻官出)

축관과 여러 집사가 모두 계단 사이의 절하는 자리로 나가시오.(祝及諸

執事俱就階間拜位)

네 번 절하겠습니다. 축관 이하 모두 네 번 절하십시오.(四拜祝以下皆四拜)
행례가 모두 끝났습니다. 차례차례 나가시오.(禮畢以次出)

타) 축문(祝文)

축문은 해마다 다르다. 대축이 짓거나 그렇지 못하면 유식한 이를 찾아가 지어오기도 한다.

파) 음복(飲福) · 번육(膳肉)

제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헌관 · 집사 · 구경간 사람 모두가 제주를 한 잔씩 마시고 포육을 안주로 먹는다. 이를 음복이라 한다.

제물을 거두어 제청에 돌아오면 전사관이 희생으로 올렸던 돼지를 삶고 제관들은 휴식한다. 고기가 삶아지면 제관들이 나누어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와서는 그 고기를 썰어 꼬챙이에 떡과 같이 꿰어 일가에 모두 나누어 보낸다.

포제는 매년 입춘이 지나고 정일이나 해일에 포제단에서 지내는 마을에 큰 제사이다. 제관의 인원은 14명으로 제관원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에 사람이 줄어 8~9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3일 전부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몸을 단정히 하고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한다. 또한 제사 음식은 오곡밥과 날것과 마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래는 마을에서 쌀 한 되씩 받아서 제사비용을 충당하였고 요즘에는 돈으로 받는데 정해진 액수는 없다. 또한 제사를 지낸 음식들은 모두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제보자: 김두순 (70세 · 여)>

■ 조사자 : 김태은(06), 남재민(07), 위진(07), 현혜림(10), 오승환(10), 이승민(10)